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

<광주일보 자료>

아시아문화 교류 협력 플랫폼 역할 강화

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5대 핵심 전략 공유
디지털 전환·보급,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거버넌스 구축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은 5대 문화권 특성화, 권역별 핵심 사업 등과 연계한 광주시와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매개로 향후 아시아 문화 교류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1월 통합전당 출범을 계기로 ACC의 미래와 핵심 가치, 전략체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중점 과제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총 40회 내부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개원 7주년에 맞춰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난 1월 통합전당 출범을 계기로 ACC의 미래와 핵심 가치, 전략체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중점 과제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총 40회 내부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개원 7주년에 맞춰 최종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라는 비전을 가지며 지난 2015년 개관한 ACC는 올 1월 조직이 새롭게 통합, 출범하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관 후 대표 브랜드나 킬러 콘텐츠 하나 없는 '허울 좋은 문화 발전소'라는 비판과 함께 이원화된 조직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은 시민들로부터 거대한 '지하방키'라는 오명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새롭게 조직이 재정비되고 올해로 개관만 7년에 들어서면서는 당초 ACC 설립 취지에

맞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실현 가능한 계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복합 문화예술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작 및 브랜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ACC가 이번에 제시한 5대 핵심의 첫 번째 과제는 아시아문화 교류의 협력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제시된 '아시아상'은 동시대 세계적 현안인 신냉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적 가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참여와 소통, 상호작용이 가능한 복합문화예술시설을 지향함으로써 아시아문화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시아문화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보급도 중요한 과제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전환을 매개로 가치를 보존하고 민간 분야 등의 콘텐츠 개발을 견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별 및 전문 주제별 아카이브 자료의 전략적 수집, 전당의 국내외 연구와 아카이브 협력 체계를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ACC는 예술과 기술, 인문학의 다학제 간 연구와 융복합을 매개하는 프로젝트 랩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과 인문의 리서치를 토대로 문화전당 고유의 융복합 콘텐츠 창작 및 확산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강화 및 고도화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ACC는 고객 중심의 관람 환경 조성 및 통합

안내 체계를 구축해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사실 ACC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체 조직문화 혁신이 선결 조건이다. 이원화 당시 경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문턱이 높고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개방성을 매개로 한 조직문화 혁신을 ACC 성패의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연유다.

또한 ACC는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시민사회 간 관계망을 구축해 소통을 정리화하는 것은 물론 5대 문화권 특성화, 권역별 핵심사업,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등과 연계한 광주시와의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예술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창작 공간의 개방과 대어,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또한 지역과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ACC는 통합전당 출범 후, 상설체험 전시관을 구축하고 라이브러리파크·문화창조원 개관 시간을 연장했으며 하늘마당 개방과 아울러 야외에서도 미디어아트 작품 감상이 가능한 미디어월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100만 명이 ACC를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평균 62만명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연간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지난 8월까지 113만명을 접속하는 등 SNS 누적 방문자 수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간화선' 전도사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일대기

정찬주 작가, '시간이 없다' 출간...8번째 고승 주인공

작가 정찬주(69)가 또 한 번 고승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을 들고 찾아왔다.

만해, 성철, 법정, 혜암스님 등 그간 선지식들의 삶을 소설로 조명해온 작가는 이번 작품의 주인공으로 수불스님을 택했다. 그의 소설 가운데 고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8번째 작품이다.

수불스님은 현재 안국선원 선원장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 한국 불교의 대표 수행방식인 '간화선'을 대중에게,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만 명에게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깨침의 문을 열어줬다.

올해로 세수 69세인 수불스님은 여전히 활발하게 전법을 펴는 현직 승려라는 점에서 이전 소설에 나온 고승의 주인공들과 다르다.

20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만난 작가 정찬주는 신작 '시간이 없다'의 집필 동기로 수불스님의 서원인 간화선 대중화·세계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스님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 창작에 나섰다고 했다.

"간화선은 일반 저자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수행방법입니다. 일주일 안에 우리 인간의 존재 실상을 체휼하게 해 주죠. 수불스님은 간화선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치열하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스님의 서원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작가와 스님과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께 지리산 벽송사에 주지 월암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사람과 별다른 연이 없던 수불스님이 벽송사 중창을 위해 거액을 모금해 보시로 전했다고는 이야기에 감명받아 스님을 찾은 게 시작이었다.

스님의 서울 거주였던 안국동 토굴을 찾아 함께 차를 마시며 내면의 이야기를 나눴고, 인연은 작가가 머무는 전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의 이불재(耳佛齋)로 이어졌다.

작가는 이후 안국선원 신도들과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하며 간화선 체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소설 '시간이 없다'를 쓰기 위한 취재도 이때 무렵 시작한 것으로 기억했다. "스님을 뵈고 나서부터 취재는 한 10년 정도, 집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했습니다." /연합뉴스

동구 밤거리 "구시청으로 모여라"

'구시청나이트 페스티벌' 23-24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광주 동구의 밤거리가 한바탕 왁자지껄해질 전망이다.

광주 동구는 23일·24일 이틀간 '구시청나이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내 풀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6시간 가량 구시청 사거리가 '차없는 거리'로 통제돼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거리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이 조성된다.

또 주변 상가 및 공공 공간, 빈 점포 등이 대거 참여해 '디제잉 음악'과 '밤'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가 위치한 구시청 사거리는 광주 중년층에게 젊은 시절 추억의 공간이자 청년 세대에게는 야간 문화의 장소로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상권 침체로 인해 임대 스티커가 가득한 '텅빈' 공간으로 인식됐다.

거리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축제는 폭넓은 운영 주체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

다. 거리 내 영업매장 등 13개소, 시민공도 단체 12개팀, 대학생 단체 4개팀, 아티스트 20개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폴리 메인무대와 네온아트거리, 서석로 34번길 일원, 백서로 125번길 일원, 문화전당로 35번길 일원, 광주인쇄비즈니스센터 등의 장소에서 디제잉 공연, 어쿠스틱 라이브 공연, 클래식 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리에 설치된 야외 부스에서 아시아 음식 및 스트리트 게임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강연 및 기타 문화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다.

박지민 위원장(코끼리협동조합)은 "이번 축제를 통해 젊은 문화기획자, 로컬크리에이터, 예술인 등이 이 거리에 새롭게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시청 사거리의 추억을 가진 모든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거리에 대한 애정을 매개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4763-5071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선선해지는 가을 '흥이 돋는 장흥 문학길 따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4일 백수인 시인 교류마당

선선해지는 가을 날씨와 함께 장흥으로 떠나 문학탐방이 진행된다. 일명 '흥(興)이 돋는 장흥 문학길 따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오는 24일 지역문화교류마당 '흥(興)이 돋는 장흥 문학길 따라'를 진행한다.

이번 탐방은 백수인 시인(조선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사진)과 함께하며 시 한편에 깃든 삶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이청준 작가의 생각, 명량해전 출전지인 회령진성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탐방은 실제 백수인 시인의 집을 방문해 이뤄지며 아울러 동계마을 기양사(岐陽祠)의 문인 13인에 관한 내용도 들을 수 있다.

이번 탐방코스는 명량해전 출정지인 회령진성을 거쳐 현대문학의 거장 이청준 소설가의 생각을



방문한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른다. 마지막으로 백수인 시인의 집에 당도해 시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해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백 시인은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 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5·18 기념재단 이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시집 '더글러스 퍼 날랜지에게' 등을 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문화와 함께하는 저항패션'

광주문화재단 '광주학콜로키움', 21일 간문자 교수 강연

복식으로 표현된 광주의 저항패션과 저항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는 강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종년)광주학콜로키움 올해 마지막 강연은 간문자(사진) 호남대 초빙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21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간 교수는 '광주문화와 함께하는 저항패션'을 주제로 해방이후 국내 학생운동에 표현된 복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생다운 순수함과 함께 저항적 특성으로 나타난 저항패션을 중심으로 저항 복식의 형태와 상징적 특성 등을 매개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간 교수는 학생운동의 특성을 청바지 거부 운동, 한복착용, 개량한복 착용 등으로 표현된 사회적인 측면과 연계해 강의할 계획이다. 민중복 착용, 수수한 색의 외복, 노동자 복식 착용 등 집



합적 행동 측면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아울러 단체 티셔츠 및 단체 개량 한복, 삭발, 머리띠 등을 학생 집단적 측면으로 분류해 복식으로 표현된 광주의 저항패션을 아우를 계획이다.

광주학콜로키움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쉴베르크'



이주영



최연주

피아노모 40번째 연주회

2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노모 마흔번째 연주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2010년 창단한 피아노모는 매년 서울, 광주 등에서 테마 있는 연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12음기법을 확립한 쉴베르크의 영향받은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쉴베

르크의 제자 베르크의 소나타 Op.1, 쉴베르크 3개의 피아노 소품 Op.11, 윤이상의 인터루디움, 미국 작곡가 코플랜드의 변주곡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무대에는 이주영, 최연주, 서양지, 김아연, 김여진, 강서정, 조혜원이 오른다.

피아노모 다음 연주회는 오는 12월 3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문의 010-6331-6834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